

아동학대 피해 유아의 인지적 특성 연구*

이수재¹⁾

요약

본 연구는 빈약한 양육환경 속에서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대피해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능력(인지처리과정, 습득도, 순차처리, 동시처리), 각 하위검사의 강점과 약점, 각 하위검사의 정보처리 유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대피해 유아들은 얼굴기억, 마법의 창, 수수께끼, 산수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단어배열, 사진순서, 인물과 장소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대피해 유아들은 순차처리보다는 동시처리에서, 습득도보다는 인지처리과정에서, 또 순차처리척도와 습득도척도에서 과반수이상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동시처리과정의 경우 과반수가 평균 범위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피해 유아들에게 강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검사는 삼각형, 그림통합사, 산수 검사이고 약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검사는 단어배열, 손동작, 인물과 장소 검사이다.

학대피해 유아들의 경우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표준점수에서 평균 이하의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학대의 후유증으로 인지발달이 지연된 유아들을 위해 인지발달을 이끌어주고 나아가 이들의 원만한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지프로그램의 최종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동학대, 인지적 특성, K-ABC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044).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I. 서론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천초등학생 폭행사망과 시신유기사건, 인천의 아동감금 학대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타박상, 골절 등 일시적인 신체손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뇌 손상 등 치명적인 학대의 후유증까지 유발하여 사망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속에서 체벌이나 훈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를 단지 한 가정의 집안문제로 눈감아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대 피해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9,214건으로 2014년에 비해 1,423건이 늘어 신고에 있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TV 등 매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 중 부모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8,207건(81.8%)로 나타났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뤄진 경우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애착의 대상인 부모가 학대의 가해자가 되기에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김은경, 2008). 아동학대 후유증은 학대 빈도가 높고 반복될수록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대 피해는 학대의 양적인 면보다 학대의 지속정도가 매우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장화정, 2004).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학대적 양육은 유아에게 있어서 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수정·정익중, 2013; 오연희, 2012; 우수정, 2013).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만 6세 이하의 아동학대는 전체 10,027건 중 2,817건(28%)로 나타났다. 생애초기에 발생한 학대는 이후에 발생한 학대보다 발달에 있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 후 첫 5년 이내에 발생한 신체적 학대는 청소년기에 폭력 및 비폭력 범죄로 체포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Lansford et al., 2007).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이들의 발달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두뇌는 출생 후 1년 동안 급성장한다. 출생 시에는 구축되지 않은 신경세포들이 부모 및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경험에 의해 정보연락망이 구축되고 강화된다(성영혜·이창미·김유진·신현정, 2004). Nash(1997)는 생애 초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애정 넘치는 상호작용과 따뜻함 보살핌이, Schore(1996)는 영아기에 부모와의 양질의 정서적 교환이 뇌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안정적인 애착이 인지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한 불안정한 부모-자녀 관계와 생애 초기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학대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영유아들의 경우 성공적인 초기 발달 과업을 이뤄나가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학대는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영유아의 뇌 발달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자극을 이겨내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학대받은 유아의 경우 정상 유아에 비해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관계를 맺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Egeland & Sroufe, 1981), 대부분이 비조직화/비정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다(Barnett, Ganiban, & Cicchetti, 1999). 또한 자기상이 덜 긍정적이었고, 정서 및 인지발달의 문제를 보였다.

영유아기는 학령기 아동에 비해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기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사 학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대사실이 발견되는 것은 쉽지 않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일반적으로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의 경우 빈곤, 이혼, 실직, 가정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정환경은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기 어렵고,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으로 학대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Berger, 2005). 또 이런 가정환경의 경우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적 자극 및 교육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가정환경 안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지능이 평균 혹은 평균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진, 2005).

학대 피해 아동들의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비교해 볼 때, 교육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언어성 지능(Verbal IQ)이 학대의 정도(severity of abuse)와 상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Carrey, Butter, Persinger, & Bialik, 1995). 학대신고 된 사례의 아동을 대상으로 KEDI-WISC를 실시한 안동현(2000)의 연구에서

는 전체 지능,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 모두 보통 수준의 하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능력이 발달하면 특정 갈등상황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아동의 인지능력이 지체되면 초기 반응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류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어려워하고(Rubin, Bream, & Rose-Krasnor, 1991) 이 같은 행동들이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Ayoub 등(2006)은 학대의 경험이 인지적 지연(cognitive delay)을 보인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인지적 복잡성과 문제해결전략에 있어서 수행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편견과 부정적 세계관에 의해 선택적인 인지적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과는 인지적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개인이 지적 수행에 관한 측정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능검사가 개발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지능검사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능검사들은 지적 수행과 잠재력을 측정하고 일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였다. 지능검사는 지적수행과 인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구로서 개인의 인지적 강점과 약점, 인지적 효율성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능의 개념은 단순히 지적수행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iaget(1977)의 구성적 개념(structural concepts)으로 지능을 이해하여 환경에 대해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의 종합적·총체적 능력이 지능이라는 정의에 따른 것이다(Kaufma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지능력이란 인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이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정보처리 과정과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하고, 사고하며 기억하는 활동, 즉 관찰될 수 없는 사상들을 포함한다(Flavell, 1992).

유아들의 인지적 발달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연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적응이나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인지발달 측면보다는 정서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 학대피해 아동들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대상이 유아인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지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의 지연, 사회정서발달이나 자기통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후유증을 가지고 있

는 학대피해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 적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해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의 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에 학대 후유증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인 간접비용을 합하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로 매년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76조원으로 추정된다(한국경제, 2016.9.20).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학대피해 유아들이 부적절한 양육환경 속에서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고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학대받은 유아들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피해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대 피해 유아들의 K-ABC 하위검사별 환산점수는 어떠한가?
2. 학대 피해 유아들의 인지능력(인지처리과정지수, 습득도지수, 순차처리지수, 동시처리지수)은 어떠한가?
3. 학대 피해 유아들의 인지능력(인지처리과정지수, 습득도지수, 순차처리지수, 동시처리지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J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가 진행되었던 미취학 유아 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심리검사 자료 중 K-ABC 지능검사 결과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중 2세 연령을 제외한 만 3세에서 만 6세 미취학 유아 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남아는 25명(39.1%), 여아는 39명(60.9%)이고, 평균 연령은 4.44세(SD=1.18)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 성학대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대 유형의 경우 중복학대의 경우에는 좀 더 아동에게 나타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학대를 우선으로 학대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단위: 명		
	구분	남	여	계
연령	3세	11	8	19
	4세	4	11	15
	5세	3	10	13
	6세	7	10	17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9	13	22
	정서적 학대	7	14	21
	방임 및 유기	9	10	19
	성학대	0	2	2
	계	25	39	64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능과 습득도를 평가하기 위해 1983년 Kaufman에 의해 개발되어 1997년 문수백과 변창진에 의해 국내 표준화된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K-ABC로 측정되는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의 인지처리 양식으로 정의된다. K-ABC에서는 유아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는 사실적 지식과 관계없이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습득된 사실을 구별하였다. K-ABC는 문제해결(지능, Intelligence)과 사실에 대한 지식(습득도, achievement)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 지능검사로 전국적인 표집계획에 따라 2세 6개월에서 12세 5개월까지의 정상아동 및 특수아동들을 표집하여 표준화되었다. 한국판 K-ABC는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4개 종합척도의 반분신뢰도를 추정했을 때 신뢰도 계수는 .87 ~ .92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수백·변창진, 200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7 ~ .81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BC는 ‘인지처리과정척도(순차처리+동시처리)’와 ‘순차처리척도’, ‘동시처리척도’, ‘습득도척도’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산출된다.

K-ABC의 각 하위검사는 평균 10, 표준편차 3의 척도점수로 산출된다. 총 16개의 하위검사는 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춰 연령마다 선택되는 과제의 종류를 달리하였다. 주로 유아의 관심, 행동, 취학 전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하위검사가 선정되었고, 적용연령이 정해졌다. 실시 대상 연령에 따른 하위검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령별 K-ABC 하위검사의 편성

구분	3세	4세	5세	6세
인지처리 과정 척도	순차처리 척도	손동작 수회생	손동작 수회생 단어배열	손동작 수회생 단어배열
	동시처리 척도	마법의 창 얼굴기억 그림통합	마법의 창 얼굴기억 그림통합 삼각형	그림통합 삼각형 시각유추 위치기억 사진순서
습득도 척도		표현어휘 인물과 장소 산수	표현어휘 인물과 장소 산수	인물과 장소 산수
		수수께끼	수수께끼	수수께끼 문자해독
전체 하위검사 수	9개	11개	11개	12개

1997년 문수백과 변창진(1997)에 의하면 순차처리척도(Sequential Processing Scale: SEQ)는 정보를 한 번에 한 개씩 연속적 또는 시간적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처리척도(Simultaneous Processing Scale: SIM)는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꺼번에 주어진 많은 정보를 통합해서 게슈탈트(전체 형태구성) 방식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처리과정 척도(Mental Processing Composite: MPC)는 순차처리와 동시처리를 합한 것으로 유동성 지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친숙하지 못한 문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측정한다. 문제해결과 관련된 일련의 기능으로 유아의 현재 지적 능력의 정도 즉 총체적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지수(IQ)를 의미한다. 습득도 척도(Achievement Scale: ACH)는 결정성 지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미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K-ABC의 여러 하위척도 중에서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학업성취와 가장 상관이 높은 척도로 습득된 사실적 지식, 언어능력, 교과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 유아들의 한국 카프만 지능검사(K-ABC) 결과를 통해 평가된 인지처리과정점수(전체 지능), 순차처리점수, 동시처리점수, 습득도점수와 더불어 지능의 구성개념인 각 하위검사의 수행경향성과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처리 양식을 분석해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K-ABC 결과의 분석은 문수백과 변창진(1997)의 K-ABC 해석요강에서 제시하는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평가, 해석하기 위해 거쳐야 할 5단계의 작업절차에 따라 프로파일을 해석하였다. 우선 각 하위 검사의 원점수를 환산점수의 산출과 기술의 절차에 따라 각 표준점수의 분포를 분석하고, 순차처리척도와 동시처리척도의 비교, 인지처리과정 하위척도와 습득도 척도의 비교, 인지처리과정 하위검사에 대한 강약 판정, 습득도 하위검사에 대한 강약판정의 5단계의 작업절차에 따라 학대피해 유아들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각 하위검사의 척도점수 강약 판정 및 표준점수들 간 유의미한 차이의 판단은 5% 유의수준에서 이뤄졌다.

학대피해 유아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가지고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인지처리과정점수, 습득도점수, 순차처리점수, 동시처리점수와 각 하위 검사의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1. 학대피해 유아의 K-ABC 하위 검사별 환산점수

학대피해 유아의 인지처리과정 하위 검사별 환산점수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시처리과정 하위검사 중 짧은 시간동안 한명 또는 두 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준 다음 다른 집합사진 중에서 다른 포즈로 찍힌 사람들 중 먼저 보았던 얼굴을 찾아내는 얼굴기억(10.63점)과 좁은 창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연속해서 사물의 그림을 제시한 다음 그 사물이 무엇인지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마법의 창(10.31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아동에게 무선적으로 배열해 주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사진순서(6.28점)와 검사자가 몇 개의 사물의 이름을 소리 내어 읽어

주면 실루엣으로 그려진 선택지 중에서 검사자가 읽어준 이름에 해당되는 그림을 찾아 차례대로 가리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어배열(6.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진순서 하위검사의 경우 유아들에게 시간 개념의 발달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유아들에게는 실시되지 않는 검사로, 6세 유아들에게만 실시된 검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들의 시간개념에 대한 발달이 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인지처리과정 하위 검사별 척도점수

단위: 점

구분		<i>M</i>	<i>SD</i>
순차처리과정	손 동 작(N= 64)	8.30	3.23
	수 회 생(N= 64)	9.28	3.65
	단어배열(N= 47)	6.62	3.59
동시처리과정	마법의창(N= 32)	10.31	3.11
	얼굴기억(N= 32)	10.63	3.36
	그림통합(N= 64)	9.97	3.40
	삼 각 형(N= 47)	9.98	3.57
	시각유추(N= 32)	7.28	2.29
	위치기억(N= 32)	9.13	3.64
	사진순서(N= 18)	6.28	3.27

학대피해 유아의 습득도 하위검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언어적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속성이 주어질 때 주어진 속성으로부터 구체적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을 추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수수께끼(93.98점), 숫자를 읽거나, 수를 세거나, 계산하는 능력이나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측정하는 산수(93.19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야기 속의 인물, 유명한 인물 또는 잘 알려진 그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인물과 장소(83.8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과 장소 하위검사의 경우 평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검사로 책을 통해 얻어지는 상식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검사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습득도 하위 검사별 척도점수

단위: 점

구분	<i>M</i>	<i>SD</i>	
습득도	표 현 어 휘(N= 37)	91.51	14.68
	인물과 장소(N= 64)	83.89	13.90
	산 수(N= 64)	93.19	17.44
	수 수 계 끼(N= 64)	93.89	12.65
	문 자 해 독(N= 26)	88.15	15.04

2. 학대피해 유아의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의 비교

한국판 K-ABC는 표준화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2,400명의 2세 6개월-12세 5개월 아동들을 연령, 성별, 지역의 3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계층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준화 집단을 구성하고 표준화를 실시하여 표준점수의 평균을 100으로 제시한 표준화된 검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BC 결과에서 표준점수는 100점, 척도점수는 10점을 일반 유아들의 평균으로 보고 학대피해 유아의 인지처리과정 점수와 비교하였다.

학대피해 유아의 순차처리점수와 동시처리점수를 비교하면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순차처리점수는 평균 하 수준(87.27점), 동시처리점수는 평균 수준(93.86점)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유아들은 정보처리 방식으로 동시처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순차처리점수와 동시처리점수(N=64)

단위: 점

구분	<i>M</i>	<i>SD</i>
순차처리점수	87.27	20.13
동시처리점수	93.86	17.64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대피해 유아의 총체적 지능지수인 인지처리과정점수는 평균 하 수준(89.30)으로 나타났고, 습득도점수도 평균 하 수준(84.20점)으로 나타났다.

〈표 6〉 인지처리과정점수와 습득도점수(N=64)

구분	<i>M</i>	<i>SD</i>
인지처리과정점수	89.30	18.33
습득도점수	84.20	16.03

단위: 점

인지처리과정 중 표준점수 간의 차이가 5%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순차처리 우세형과 동시처리 우세형/ 인지처리과정 우세형, 습득도 우세형으로 나누고 차이가 유의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우세형으로 정보처리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7〉의 K-ABC 정보처리 유형의 분류에서 순차처리척도와 동시처리척도의 표준점수간에 차이가 없는 비우세형(SEQ=SIM)이 37명(5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처리 우세형(SEQ>SIM)은 6명(9.4%), 동시처리 우세형(SEQ<SIM)은 21명(32.8%)으로 순차처리 우세형보다는 동시처리 우세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대피해 유아의 정보처리 유형(순차처리와 동시처리)

구분	순차처리 우세형	동시처리 우세형	비우세형
	<i>n</i> (%)	<i>n</i> (%)	<i>n</i> (%)
전체	6(9.4)	21(32.8)	37(57.8)

단위: 명(%)

학업성취수준과 지적능력의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인지처리과정척도와 습득도척도의 종합척도를 비교해 보면 〈표 8〉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간에 차이가 없는 비우세형(MPC=ACH)이 41명(64.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지처리과정이 습득도보다 높게 나타난 아동(MPC>ACH)은 16명(25.0%), 습득도가 인지처리과정보다 높게 나타난 아동(MPC<ACH)은 7명(10.9%)으로 나타났다.

〈표 8〉 학대피해 유아의 정보처리 유형(인지처리과정, 습득도)

구분	인지처리과정 우세형	습득도우세형	비우세형
	<i>n</i> (%)	<i>n</i> (%)	<i>n</i> (%)
전체	16(25.0%)	7(10.9%)	41(64.1%)

단위: 명(%)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 표준점수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순차처리 점수의 경우 38명(59.4%)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동시처리 점수의 경우 학대피해 유아들의 50%가 평균 수준, 21명(32.7%)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지처리과정 점수의 경우 31명(48.4%)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 습득도의 경우 40명(62.5%)이 평균범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 유아들의 습득도 검사 결과에서 과반수이상 유아들의 습득도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대피해 유아의 인지처리과정 표준점수 분포특성

구분	단위: 명(%)			
	순차처리	동시처리	인지처리과정	습득도
69점 이하(매우 낮은)	12(18.8%)	7(10.9%)	10(15.6%)	12(18.8%)
70-79점(경계선)	13(20.3%)	7(10.9%)	8(12.5%)	13(20.3%)
80-89점(평균 하)	13(20.3%)	7(10.9%)	13(20.3%)	15(23.4%)
90-109점(평균)	17(26.6%)	32(50.0%)	25(39.1%)	21(32.8%)
110-119점(평균 상)	2(3.1%)	7(10.9%)	3(4.7%)	1(1.6%)
120-129점(우수)	4(6.3%)	3(4.7%)	4(6.3%)	2(3.1%)
130점 이상(매우 우수)	3(4.7%)	1(1.6)	1(1.6%)	-

3. 학대피해 유아들의 K-ABC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강약 판정

K-ABC 하위검사에서 강약 판정은 모든 인지처리과정 하위검사에서 획득한 척도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 척도점수와 각 하위검사의 척도점수를 비교해 어떤 하위검사의 척도점수가 평균 척도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으면 강점, 유의하게 낮으면 약점이라 하였다. 한 하위검사에서 받은 점수는 자신의 평균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 또는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규준에 의거해 강점, 약점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신의 능력 안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0>에서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 하위검사 중 강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동일한 모양의 삼각형 조각을 조립해서 제시된 그림 속의 모델과 같게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삼각형 13명(20.3%)과 미완성된 사물의 잉크얼룩 그림을 제시해 마음속으로 그림의 빠진 부분을 채운 다음 그 그림의 이름을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그림통합 11명(17.2%)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유아들의 약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검사자가 몇 개의 사물

의 이름을 소리 내어 읽어주면 실루엣으로 그려진 선택지 중에서 검사자가 읽어준 이름에 해당되는 그림을 찾아 차례대로 가리키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어배열 10명(15.6%)과 검사자에 의해 제시된 일련의 손동작을 정확한 순서로 재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손동작 9명(14.1%)로 나타났다.

〈표 10〉 인지처리과정 하위검사별 강점과 약점

단위: 명(%)

구분	강점	약점
마법의 창	4(6.3%)	2(3.1%)
얼굴기억	8(12.5%)	1(1.6%)
손동작	5(7.8%)	9(14.1%)
그림통합	11(17.2%)	3(4.7%)
수회생	7(10.9%)	8(12.5%)
삼각형	13(20.3%)	5(7.8%)
단어배열	1(1.6%)	10(15.6%)
시각유추	1(1.6%)	3(4.7%)
위치기억	5(7.8%)	1(1.6%)
사진순서	-	7(10.9%)
없음	9(14.1%)	15(23.4%)

〈표 11〉에서 학대피해 유아들의 습득도 하위검사 중 강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산수로 나타났다. 산수는 가정에서의 수에 관한 연습 경험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학습 등이 검사점수에 영향을 주는 검사이다.

학대피해 유아들의 습득도 하위영역의 약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물과 장소로 이 검사가 강점으로 나타난 유아는 한 명도 없었다. 인물과 장소 검사는 사실적 학습과 주위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물과 장소 검사의 경우 문화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다른 인지처리척도와 습득도 하위검사 점수에 비해 점수가 낮을 때 양육환경의 궁핍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문수백·변창진, 1997).

〈표 11〉 습득도 하위검사별 강점과 약점

단위: 명(%)

구분	강점	약점
표현어휘	2(3.1%)	2(3.1%)
인물과 장소	-	14(21.9%)
산수	15(23.4%)	9(14.1%)
수수께끼	13(20.3%)	3(4.7%)
문자해독	7(10.9%)	3(4.7%)
없음	27(42.2%)	33(51.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미취학 유아들을 대상으로 빈약한 양육환경 속에서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교육적 경험 부족의 영향을 받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K-ABC 지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 유아들의 K-ABC 하위검사별 점수를 살펴보면 인지처리과정 척도에서 얼굴기억 검사, 마법의 창 검사, 습득도 척도에서는 수수께끼 검사, 산수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또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검사는 인지처리과정 척도에서는 단어배열 검사와 사진순서 검사, 습득도 척도에서는 인물과 장소 검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ADHD 아동에서 그림통합과 시각유추에서 낮은 수행을 나타냈다는 배대석과 구분훈(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충동성이 강하고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ADHD 아동들과는 인지처리 양상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처리과정에서 학대피해 유아들에게 높은 점수가 나타난 수회생, 얼굴기억 검사의 경우 유동성지능과 관련이 있는 검사이다. 유동성 지능은 경험이나 학습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유아들에게서 유동성 지능과 관련된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낮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아서 인지적 능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단어배열, 사진순서 검사는 집중력, 충동성에 영향을 받는 검사로 이 하위 검사들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경우 충동성이 강하고 주의집

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과 장소 검사는 시각-청각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습득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초기 환경의 풍부함,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가정의 문화적 환경, 흥미, 아동을 위한 부모나 형제들의 책 읽어주기, TV를 통한 만화나 교육프로그램의 시청, 신문이나 잡지 구독, 학교 학습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인물과 장소 검사의 경우 일반 상식이 영향을 끼치는 검사로 이 검사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일반 상식이 낮은 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역시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를 살펴본 결과 순차처리척도는 평균 하 수준, 동시처리척도는 평균 수준으로 순차처리보다는 동시처리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동시처리의 경우 유아들의 절반이 평균 수준이었고, 순차처리척도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유아들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대피해 유아들이 동시처리 점수가 순차처리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아동에게서 동시처리가 순차처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배대석(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조작기에 있는 유아의 경우 동시적 처리능력이 계열적 처리능력보다 우세하다고 한 문수백과 양경수(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순차처리 능력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ADHD 아동의 순차처리능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배대석과 구본훈(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학대피해 유아들의 경우 주의집중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ADHD 아동들과는 인지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순차처리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된 정보를 한 번에 한 개씩 순서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분석하는 인지양식으로 좌뇌와 연결되어 있다(김현정, 2001).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다양한 일상적인 기능이나 학교 학습에 관련된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순차처리 능력이 낮으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모나 교사의 언어적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도형이나 그림의 다양한 부분이나 특징에 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복잡한 산수, 과학 문제에서 단순한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못해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동시처리 능력이 낮으면 단시간에 이야기의 요점을 이해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rman, 1980). 순차처리 능력이 동시처리 능력보다 학습 능력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순차처리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학습능력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전선영·신민섭·조수철·김봉년, 2003).

학대피해 유아들의 정보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종합척도 프로파일에서는 표준점수간에 차이가 없는 비우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ADHD 아동의 63%가 순차처리척도와 동시처리 척도 표준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비우세형이 많다는 구분훈·이혜린·배대석(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비우세형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학대피해 유아들이 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호하는 정보처리 양식이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일관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중 어느 한 쪽이 약한 유아일지라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보충할 수 있으며 검사상에서는 처리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비우세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처리척도의 표준점수가 순차처리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처리 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주의의 피전도성에 의한 영향이거나 단기 기억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문수백·변창진, 1997)

학대피해 유아들의 전반적인 인지처리과정을 살펴본 결과 인지처리과정척도와 습득도척도는 평균 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로 인해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들의 지능이 일반 아동의 지능 평균과 유사하다는 주소영(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인지처리과정의 경우 유아들의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유아들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습득도척도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유아들에게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대신고 된 사례의 아동을 대상으로 KEDI-WISC를 실시한 안동현(2000)의 연구에서도 전체 지능,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 모두 보통 수준의 하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가정의 경우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적 자극 및 교육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가정환경 안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지능이 평균 혹은 평균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혜진(2005)의 연구, 학대경험 아동의 지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은 일반 아동에 비해 지적 수행이나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관련된 환경 자극을 받지 못해서라는 주소영(2008)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습득도는 생득적으로 타고난 인지능력이라기보다는 주변의 교육이나 문화적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으로 습득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의집중과 순차처리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구효진·최진선(2012)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학대피해 유아들의 순차처리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의 주의집중이나 학습에서의 어려움

이 경험에 의한 지식습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종합척도간의 프로파일에서 비우세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우세형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간의 큰 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들의 인지처리과정 점수와 습득도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의 영향이 비슷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지처리과정척도의 표준점수가 습득도 척도의 표준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아동의 경우, 그 아동이 획득한 지식과 기술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불리한 환경, 학습능력 지체, 학습동기부족, 장기기억의 장애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지처리과정 하위검사별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면 학대피해 유아들에게 강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검사는 삼각형 검사와 그림통합 검사이고 약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검사는 단어배열 검사와 손동작 검사이다. 이 결과는 배대석·구본훈(2006)의 연구 결과에서 일반아동의 인지처리과정 척도의 강점과 약점으로 나타난 하위검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삼각형과 그림통합에서 강하다는 것은 대체로 동시처리에 강하다는 것이고 동시처리가 강한 아동의 경우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독립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틀에 맞추어가고 문제해결에 융통성을 보이며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문수백·변창진, 1997).

습득도에서 강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검사는 산수이고, 약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검사는 인물과 장소 검사이다. 이 결과는 배대석·구본훈(2006)의 연구 결과에서 일반아동의 습득도 척도의 강점과 약점의 인지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으로 나타나는 하위검사들이 일반 유아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게 일반유아와 학대피해 유아들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습과 적응에 대한 부분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K-ABC 검사 결과에 따른 인지처리과정에 관한 정보는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두 가지의 문제해결 능력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유아의 인지처리 능력의 정도를 밝혀냄으로써 유아의 학습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현재의 지적 능력의 수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적 또는 심리적 처방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K-ABC의 구성요소인 지능과 습득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가정으로부터 인지적 자극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대피해 유아의 인지발달과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추후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보를 조직하는 정보처리 양식은 학습의 형태 및 방법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유아에게 좀 더 유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인지적 특성인 정보처리 양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순차처리가 동시처리보다 낮게 나타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의 피해 유아들을 위해 순차처리능력의 발달을 이끌어주고 나아가 이들의 원만한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습과 심리치료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J시에서 학대신고 된 미취학 유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연구대상자 자료 수집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는 연구대상자 수를 충족시킬 수는 있었지만 반대로 연구대상인 학대피해 유아 집단의 동질성과 관련된 문제를 배제할 수 없었다. 또 단일지역의 자료를 전체 학대피해 유아로 일반화하기에는 필요한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자료 수집으로 단기간에 더 많은 학대피해 유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지적 특성도 파악해 보는 과정이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구본훈·이혜린·배대석(2006). ADHD 아동의 한국판 K-ABC 수행특성: 2. 정보처리 유형에 따른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2(4), 293-313.
- 구효진·최진선(2012).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115-136.
- 김수정·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은경(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2001). 유아의 우뇌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실험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수백·변창진(1997), K-ABC 해석요강. 서울: 창지사.
- 배대석·구본훈(2006). ADHD 아동의 한국한 K-ABC 수행특성:기술적 분석, **정서, 행동장애 연구**, 22(4), 153-183
- 성영혜·이창미·김유진·신현정(2004). 치료놀이를 통한 영아보육, 서울: 학지사.
- 안동현(2000). 신고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 오연희(2012). 아동의 피학대경험이 아동의 비행과 또래관계 소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수정(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앓이가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이혜진(2005).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및 인지적 특성,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화정(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 전선영·신민섭·조수철·김봉년(2003). 학교습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K-ABC와 K-LDES의 진단적 타당도.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4(2), 209-217.
- 주소영(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영아방임에 관한 연구.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
- 한국경제(2016.9.20.). 아동학대 예방, 일본 광장사업에서 배우자.
- Ayoub, C. C., O'Connor, E., Rappolt-Schlichtmann, G., Fischer, K. W., Rogosch, F. A., Toth, S. L. & Cicchetti, D. (2006). Cognitive and emotional differences in young maltreated children: A translational application of dynamic skill theor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679-706.
- Barnett, D., Ganiban, J., & Cicchetti, D. (1999). Maltreatment, negative expressivity, and the development of type D attachments from 12 to 24 months of age.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4, 97-118.
- Berger, L. M.(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9(2), 107-133.
- Carrey, N. J., Butter, H. J., Persinger, M. A., & Bialik, R. J. (1995). Physiological and

- cognitive correlat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067-1075.
- Egeland, B., & Sroufe, L. A. (1981). Developmental sequelae of maltreatment in infanc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1, 77-92
- Flavell, J. H. (1992). Cognitive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In Kang Lee(ed.),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pp. 8-29). Blackwell Publishers.
- Jarman, R. F. (1980). Cognitive processes and syntactical structure: Analyses of paradigmatic and syntagmatic associations. *Psychological research*, 41, 153-167.
- Kaufman, A. S. (1994). *Intelligent testing with the WISC-III*.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nsford, J. E., Miller-Johnson, S., Berlin, L., Dodge, K. A., Bates, J. E., & Pettit, S. (2007). Early physical abuse and later violent delinqu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Child Maltreatment*, 12(3), 233-245.
- Nash, C.(1997). Cause-for-concern criteria in child protection. *Health Visitor*, 70(7), 260-261
- Piaget, J. (1977). Piaget's Theory. In Kang Lee(ed.),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pp 33-47). Blackwell Publishers.
- Rubin, K. H., Bream, L. A., & Rose-Krasnor, L. (1991). Social problem solving and aggression in childre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219-248). Hillsdale, NJ: Erlbaum.
- Schore, A. N. (1996). Interdisciplinary Developmental Research as a Source of Clinical Models. *Library of Clinical Psychoanalysis*, 3, 1-72

·논문접수 11월 1일 / 수정본 접수 12월 8일 / 게재 승인 12월 16일

·교신저자: 이수재,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이메일 sjmano@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bused young children

Lee Soo Jae

This study investigate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bused young children. First, the analysis of abused young children's scores for each subtest of K-ABC indicated that abused young children scored high in face ecognition, magic window, riddles, and arithmetic tests. Meanwhile, abused young children scored low in word order, photo series and faces and places test. Second, the examination of overall cognitive processing of abused young children showed that young children scored higher in Simultaneous Processing than in Sequential Processing, and also higher in Mental Processing Composite than in Achievement. Third, the largest number of abused young children exhibited strengths in triangles and Gestalt closure, whereas most young children appeared to have weaknesses in word order and hand m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primary data for establishing the final model of a cognitive program that can promote abused young children' delay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ir school adjustment.

Key words: Abused young children, Cognitive Characteristics, K-ABC